

16세기 아스테카 제국의 정치적 식민화: 변화인가 연속인가?

김윤경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김윤경(2013), 16세기 아스테카 제국의 정치적 식민화: 변화인가 연속인가?

초록 이 논문은 정복 이후 아스테카 제국의 식민화에 대해서 정치적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한 스페인인들은 피정복민인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이용하면서 식민지의 제도를 정착시켜나갔다. 그 과정은 연속의 과정이자 동시에 변화의 과정이었다. 먼저 연속의 과정으로 보면, 스페인인들은 아스테카 제국의 기본적인 정치조직인 알테페틀을 토대로 정치 행정조직들을 만들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아스테카 제국의 지배계층이었던 원주민 귀족들 중 일부는 식민지의 정치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이용되면서 식민지에서도 계속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변화의 과정으로 보자면, 카빌도 같은 아스테카 제국에는 없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스페인 왕의 임명을 받은 코레히도르라는 새로운 관리가 등장하여 식민지의 지방행정을 담당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나 연속적인 측면들 모두가 아스테카 제국의 식민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다. 알테페틀은 식민지 정치조직의 근간이 되었으며, 원주민 지배계층은 식민지의 지배질서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유럽인 지배자들에게 종속된 신분으로서 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점이 정복 후 아스테카 제국이 겪은 변화와 연속의 진정한 의미이다.

핵심어 아스테카, 식민화, 알테페틀, 코레히미엔토, 엔코미엔다, 카빌도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I. 서론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후 30여 년이 지난 1521년 코르테스는 메소아메리카의 거대한 제국 아스테카를 정복했다. 1519년 2월 18일 쿠바를 떠난 코르테스 원정대는 아스테카 제국의 동쪽 해안 베라크루스 항에 도착했다. 그 후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던 이 원정대가 내륙으로 계속 진군하여 5만에서 10만에 이르는 전사가 버티고 있는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점령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코르테스 일행이 아스테카 제국의 땅에 발을 내디딘 지 불과 3년 만에 신적인 존재였던 묵테수마가 유럽인 코르테스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이것은 “두 세계의 만남”이 아니라 한 세계에 의한 다른 한 세계의 “정복”이었다. 이로써 아메리카는 유럽의 “최초의 식민지”이자 “최초의 주변부”가 되었다.¹⁾ 정복 이후 유럽인들은 새로운 땅 아메리카를 식민화하기 시작했다. 정복자 유럽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제도 등 다양한 면에서 피정복민을 지배하기 위해 그들의 오랜 삶의 방식을 이용하거나 변화시키면서 제도를 정착시키고 구조화해나갔다. 그것은 유럽이 “타자”인 아메리카를 소외시키고 문명화하고 근대화하는 과정이었다(두셀 2011, 66). 그 과정은 폭력적이었다. 유럽인들과 함께 아메리카 땅에 도착한 전염병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원주민들을 강타하여 엄청난 수의 원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뿐 아니라 정복자들은 원주민을 사탄의 유혹에 빠진 야만인으로 규정짓고 기독교도화하면서 “영혼을 정복”해나갔다. 식민지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유럽인의 생활방식과 사고체계를 강요당했다.

이러한 식민화 과정을 놓고 역사가들은 정복이 아스테카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쟁을 벌였다. 과연 아스테카 제국은 정복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크게 변화인가 연속성인가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우선, 첫 번째로 변화의 관점에서 식민지 시대 아스테카 사회를 보는 논자들은 정복이

1) 윌러스틴(1999)이 제시한 명제이다.

아스테카 사회, 특히 멕시코 중부 나우아 사회를 노동조직에서 종교와 계급 구조에 이르기까지 스페인을 근간으로 삼으면서 심각하게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²⁾ 두 번째로, 연속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문화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정복으로 아스테카 사회가 구조적인 변화를 광범위하게 겪기는 했지만, 원주민은 특히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적인 연속성을 강조한다.³⁾ 반면에, 수전 켈로그(Kellogg 1995) 같은 학자는 문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문화적인 연속성보다는 변화과정에 주목하고, 식민지 시대 법이 문화적 변화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종래의 해석은 둘 다 기본적으로 변화의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변화 속에서도 연속의 측면을 강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문제는 변화이든 연속이든 그것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복 이후 아스테카 사회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치 지배질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변화가 있었다면 어떠한 변화였는지 연속성이 있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연속성이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는 아스테카 제국의 식민화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는 정복 직후부터 시작해서 16세기를 다루고, 연구 대상 지역은 멕시코 계곡(Valle de México)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 지역은 아스테카 제국의 심장부로서 아스테카 문명이 번영했던 곳이며, 정복 이후 아스테카 제국의 역사를 검토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
- 2) 이러한 해석으로는 Chevalier(1963), Kubler(1948), Foster (1960), Richard(1966), Borah(1951; 1983) 참조.
 3) 이러한 해석으로는 Gibson(1964), Cline(1986), Gosner(1984), Haskett(1991), Lockhart(1992) 참조.

II. 알테페틀(altepeti)의 식민화

1. 카베세라(cabecera)-수헤토(sujeto) 체제의 성립

1521년 코르테스 일행이 테노치티틀란을 함락시키고 난 후, 스페인인들이 당면한 문제는 몰락한 아스테카 제국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통치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광대한 영토에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는 원주민들을 스페인 왕의 신민으로 받아들이고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였다. 정복 당시 아스테카 제국은 “도시들의 모자이크”라고 할 정도로 독특하고 이국적인 다양한 원주민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복자들은 이러한 원주민 도시들을 스페인 방식의 도시들로 재조직하여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려 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식민화” 과정의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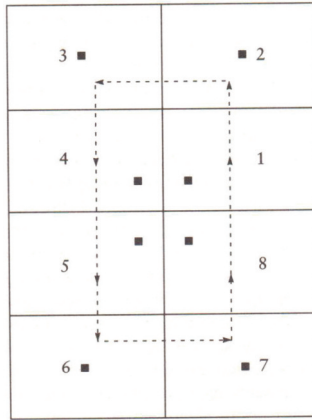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아메리카의 원주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한 이념적 논쟁을 수반했다.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정치적으로 재편하려면 원주민의 문화와 제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스페인인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Borah 1983, 266-267). 첫 번째는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로 대변되는 입장으로, 원주민들은 그들의 제도와 법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보면서, 기독교 도입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화만을 허용하고 스페인인들은 원주민의 기존 제도와 법을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헤로니모 데 멘디에타(Jerónimo de Mendieta)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입장인데, 그는 두 개의 공화국 개념을 설파했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스페인인들과 원주민들은 각각의 공화국을 이루고 있으며, 각 공화국은 자체의 제도와 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가능한 한 고립되어 있어야 한다. 원주민들의 제도와 법은 기독교에 순응해야 하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자신들의 오래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페인인들의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Leddy Phelan 1970, 41-91). 세 번째 입장은 스페인 왕의 법률가들과 식민자들(colonists) 대

부분이 지지했던 입장으로, ‘하나의 공화국’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했다. 다시 말해서 원주민들은 유럽의 체제에 가능한 한 빨리 동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스페인의 제도와 법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 중에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의 공화국’이라는 입장이었다. 식민지 시대 법적 기구나 행정 조직의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스페인 왕은 이러한 입장들 중에서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택하지는 않았다. 스페인 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화국이라는 이념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원주민의 조직과 관습이 기독교적인 개념이나 스페인적인 이성애 반대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530년에 스페인 왕은 누에바 에스파냐의 지방 통치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처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규정에서 왕은 원주민의 관습들 중에서 좋은 것은 계속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더 나아가 왕은 원주민 통치자들과 귀족과 평민의 권리들을 존중하도록 했다. 왕은 원주민들을 자신에게 종속된 신민이라고 생각했다. 원주민 통치자들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었지만, 종래에 누리던 경제적인 수입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스페인 왕은 먼저 도시를 식민화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한 일은 알테페틀(Altepetl)을 카베세라(cabecera)와 수헤토(sujeto)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원주민 사회를 정치적으로 식민화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 스페인인들은 정복 이전의 원주민 정치조직인 알테페틀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 조직을 바탕으로 스페인식의 카베세라를 만들었다. 이것은 정복 이전 원주민 사회의 정치조직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었다. 원주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기본 생각이 여기에 깔려 있었다. 정복 이후 스페인인들은 아메리카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정복 이전 원주민 사회의 제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식민 지배구조를 건설했다.

그렇다면 알테페틀이란 무엇인가? 나우아어로 atl은 물을, tepetl은 산을 의



<그림 1> 알테페틀

출처: Lockhart(1964, 19)

미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영토를 언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주로 주어진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이다. 알테페틀은 나우아 세계의 핵심적인 지배조직이었으며, 그 조직의 최소 요건은 영역, 주민, 지배자 틀라토아니(tlatoani)였다.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테페틀의 지위를 획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신들과 그와 관련된 종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배자 틀라토아니의 궁전, 시장, 토지 등을 갖추어야 했다. 사실상 아스텍아 제국은 이러한 알테페틀이 여러 개 모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알테페틀은 친족집단인 몇 개의 칼푸이(calpulli)로 구성되어 있었다. 알테페틀의 전형적인 형태는 알테페틀의 중심 도시가 있고 그 주변을 여러 개의 칼푸이 또는 틀라힐라카이(tlaxilacalli)가 둘러싸고 있었다. <그림 1>의 예를 보면, 한 알테페틀이 중심 쪽에 네 개의 칼푸이, 외곽에 네 개의 칼푸이, 총 8개의 칼푸이로 구성되어 있다.

알테페틀을 구성하고 있었던 칼푸이는 알테페틀 내에서 일정하게 정해진

4) 틀라토아니가 여러 명인 알테페틀도 있었다. 알테페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James Lockhart(1992) 1장 참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거기에는 자체 신전과 지도자 테옥틀리(teuctli), 학교 텔포치카이(telpochcalli), 칼메카(calmecac) 등이 있었다. 각각의 칼푸이는 서로 동등한 지위를 누리면서 순번제로 알테페틀에 대한 공물납부와 노동부역 같은 의무들을 수행했다. 알테페틀의 틀라토아니가 거주하는 칼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특권을 가지지 않았다. 틀라토아니는 알테페틀 전체의 지배자였지만 하나의 칼푸이의 지배자로서 다른 칼푸이의 지배자들과 같은 지위를 누렸다.

스페인인들은 알테페틀에 있는 칼푸이들에 위계질서를 부여했다. 스페인인들은 원주민 사회 조직에서 칼푸이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알테페틀의 중심지에 있는 칼푸이들은 카베세라로, 외곽에 있는 칼푸이들은 틀라토아니에 종속된 수혜토로 규정되었다. 카베세라는 원주민 지배자가 있는 주요 도시였으며, 중심에는 바리오들(barrios)을, 좀 떨어진 외곽에는 에스탄시아들(estancias)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카베세라는 스페인 식민 당국의 중심지 기능을 하며 공물과 노동을 징수했다. 이러한 카베세라와 수혜토는 이후 식민지의 정치 경제 조직의 기본이 되었다.

알테페틀을 카베세라로 재편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카베세라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다. 그것은 틀라토아니라는 자격을 가진 원주민 통치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틀라토아니의 전통이 있는 중심 도시가 카베세라가 되었고, 일반적으로 원주민이 거주하는 칼푸이는 스페인식 수혜토가 되었다.⁵⁾ 정복 이후 식민시대에도 틀라토아니 혈통은 계속 유지되었다. 요컨대, 16세기에 카베세라는 원주민 정부의 중심지였던 곳이며 최고위 원주민 귀족의 거주지였고 공물 징수와 노동 동원을 위한 중심지였다. 수혜토는 보통 하나의

5)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틀랄네판틀라(Tlalnepantla), 테오칼우에야칸(Teocaluheycan), 티사유카(Tizayuca), 테카마(Tecama), 치콜로아파(Chicoloapa)는 정복 이전에 틀라토아니의 거주지가 아닌데도 카베세라가 되었다. 틀랄네판틀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원주민을 모아 놓은 집단체화(congregation)의 결과이며, 나머지 지역은 엔코미엔다가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소치밀코(Xochimilco)처럼 틀라토아니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틀라토아니가 있는 지역이 카베세라가 되기도 하고 수혜토가 되기도 했다.

칼푸이였으며, 카베세라에 공물, 노동부역, 그 외의 의무들을 바치는 공동체였다. 예를 들면, 테노치티틀란과 틀랄텔롤코는 멕시코 계곡 지역에서 틀라토아니 전통을 가지고 있는 주요 지역으로, 식민지 시대 초기에 양쪽 다 카베세라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스페인인들은 식민지의 카베세라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스테카 제국의 틀라토아니 전통을 토대로 삼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성립된 카베세라와 수혜토의 관계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스페인인들이 아니라 주로 원주민들이었다. 우선 원주민 카시케들은 테노치티틀란, 텍스코코, 타쿠바와 함께 삼각동맹 체제의 패권을 재확립하려고 했다. 이 세 도시가 다른 카베세라들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다. 반면에 수혜토들에 있는 원주민 지도자들은 카베세라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공동체들을 카베세라의 지위로 승격시키려고 했다. 인구감소도 카베세라와 수혜토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인구의 소멸로 완전히 사라지는 수혜토들도 있었고, 종교적인 집단화(congregación)로 카베세라에서 수혜토의 지위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은 식민지 시대 내내 지속되었다.

2. 엔코미엔다(encomienda)⁶⁾와 교구(doctrina)의 형성

이러한 카베세라-수혜토 체제는 사적인 통치제도인 엔코미엔다를 형성하는 과정과 병행되었다. 스페인인들은 정복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대가로 정복자들에게 엔코미엔다를 수여했다. 이 작업은 정복 직후인 1520년대에 바로 시작되었다. 엔코미엔다는 원주민을 식민화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었다. 정복 직후 코르테스는 멕시코 계곡에서 엔코미엔다들을 수여했으며, 따라서 1523년에는 이미 이 제도가 확립된 상태였다. 코르테스 자신도 스스로에게

6) 이 제도는 원래 스페인의 제도로, 스페인 왕은 이 제도를 서인도 제도에서 이미 원주민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코르테스가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한 후 이 지역에도 도입했다.

텍스코코(Texcoco), 찰코(Chalco), 오투바(Otumba), 코요아칸(Coyoacan) 같은 엔코미엔다를 수여했으며, 테노치티틀란을 왕의 수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자신의 사유지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실제로 코르테스에게 공물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수가 23,000명을 넘었다. 그리하여 식민지 시대 초기에 멕시코 계곡은 엔코멘테로들(encomenderos)의 기반이 되는 중심 지역이 되었다. 1530년대 중반 멕시코 계곡의 엔코미엔다의 수는 30개 정도로 공부납부 원주민 수는 180,000명가량 되었다. 평균적인 엔코미엔다는 약 6,000명 정도의 원주민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엔코미엔다는 소치밀코(Xochimilco)로 약 20,000명의 원주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 작은 것은 테키시스틀란(Tequicistlan)으로 약 450명의 원주민을 포함하고 있었다 (Gibson 1964, 60-61).

이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은 특권적인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원주민 집단을 공식적으로 할당하는 것이었다. 정복 초기 스페인 왕은 일정 집단의 원주민을 정복자들에게 위탁하여 원주민에게 스페인어와 가톨릭을 전파하는 책임을 부여했다. 그 대신 정복자 엔코멘테로들은 원주민들에게서 노동이나 생산물의 형태로 공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엔코미엔다는 스페인 식민자들에게 부와 특권의 상징이 되면서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에 비례해서 원주민에게는 공포와 억압의 원천이 되었다. 1530년대 내내 엔코멘테로들은 스페인 사회와 원주민 사회 양쪽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급이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엔코미엔다의 형성이 원주민 사회의 기본 정치단위였던 알테페틀을 토대로 했다는 점이다. 스페인 왕은 원주민 사회의 알테페틀을 엔코미엔다로 재조직했다. 보통 하나의 알테페틀이 하나의 엔코미엔다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규모가 큰 알테페틀은 두 개의 엔코미엔다로 나뉘기도 하고, 아주 큰 알테페틀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 때문에 그대로 왕의 직속 관할지역으로 남아 있거나, 잠깐 동안만 엔코미엔다가 되었다가 왕의 관할구역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여러 명의 틀라토아니를 가지고 있는 엔코미엔다들은 수명이 짧았다. 예를 들어 툀란싱고(Tulancingo)의 경우, 두 개의 엔코미엔다로 분리되었지만, 세 명의 틀라토아니가 있었던 소치밀코는 잠시 엔코미엔다가 되었다가 1541년에 왕에게 귀속되었다.

그렇다면 엔코미엔다와 카베세라/수혜토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엔코미엔다가 몇 개의 수혜토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카베세라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의 엔코멘테로에게 하나의 카베세라와 한 명의 카시케가 수여되는 경우가 전형적인 형태였던 것이다. 보통 하나의 엔코미엔다가 하나의 알테페틀을 토대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엔코미엔다가 여러 명의 틀라토아니가 있는 여러 개의 카베세라인 경우도 있었고, 틀라토아니 전통이 없는 새로운 카베세라인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테노치티틀란은 하나의 카베세라를 가지고 있는 엔코미엔다였던 반면, 텍스코코는 다섯 개의 카베세라를 가지고 있는 엔코미엔다였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은 엔코미엔다가 원주민들에게 어떤

<표 1> 대표적인 엔코미엔다들

엔코미엔다	지위(구성)	1560년 경 공물납부자 수
텍스코코 등	5개의 카베세라, 그 중 4개는 분쟁 중	16,015
찰코	4개의 카베세라	14,842
테노치티틀란	1개의 카베세라	12,971
소치밀코	3개의 카베세라	10,583
틀랄텔롤코	1개의 카베세라	8,665
오투바	1개의 카베세라	5,550
쿠아우티틀란 등	3개의 카베세라와 분쟁 중인 카베세라 1개	5,020
테포스틀란	1개의 카베세라	2,971
타쿠바	1개의 카베세라	2,700
코요아칸	1개의 카베세라와 분쟁 중이거나 새로운 카베세라 1개	2,130

출처: Gibson(1964, 64)의 표를 토대로 작성.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점이다. 엔코미엔다는 정복 초기 원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공포의 근원이었다. 엔코멘테로들은 원주민에게 노동과 공물 납부를 강제했을 뿐 아니라, 원주민들을 정복 사업에 필요한 군 병력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소치밀코 엔코멘테로였던 페드로 데 알바라도(Pedro de Alvarado)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누코(Panuco)를 정복하러 가는 데 수 천 명의 원주민을 군대로 이끌고 갔다(Gibson 1964, 77). 그리고 대부분의 엔코멘테로들이 아스카 제국의 수도에 거주했기 때문에, 멕시코 제국의 엔코미엔다 원주민들은 수도에다 엔코멘테로들의 집을 짓는 데 노동력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코르테스는 자신의 궁전을 짓는 데 코요아칸의 원주민들을 동원했다. 사실상 엔코미엔다는 노예제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원칙상 엔코미엔다의 원주민들을 노예처럼 엔코멘테로가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원주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거나 노예로 팔려나갔다. 엔코멘테로들은 원주민들이 그들의 지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원주민에 대한 불법적이고 억압적인 수단들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엔코멘테로들의 원주민에 대한 착취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텍스코코 북동쪽 아콜후아(Acolhua)에 있는 카베세라인 테페틀라오스톡(Tepetlaoztoc) 엔코미엔다의 경우이다(Gibson 1964, 78-79). 맨 처음에는 코르테스가 이 엔코미엔다의 주인이었는데, 코르테스의 심복 디에고 데 오캠포(Diego de Ocampo)와 미겔 디아스 데 아우흐(Miguel Díaz de Aux)에게 넘어갔다가, 결국 코르테스의 가장 악명 높은 적이었던 곤살로 데 살라사르(Gonzalo de Salazar)에게로 넘어갔다. 살라사르 수중에 있을 때, 원주민 상층 계급은 공물 수입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엔코멘테로에게 빼앗겼다. 옷, 음식, 금, 연료 원주민 노동 등이 수중에 들어오기도 전에 다 없어져 버렸으며, 엔코미엔다의 원주민 전체가 멕시코 시에 있는 살라사르와 그의 부인과 집사들이 살 집들을 짓는 데 동원되었다. 1530년에는 살라사르가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공물을 요구했다. 게다가 배에 싣기 위해서 베라크루스로 살라사르의 물건들을 운

반하느라 200명이 넘는 원주민이 죽었다. 살라사르는 스페인 여행에서 돌아오자 원주민 틀라토아니들을 때리면서 더 많은 공물을 요구했다. 그는 엔코미엔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리에 그것을 잘 유지해서 아들에게까지 넘겨주었다.

이처럼, 정복 직후인 1520년대부터 스페인 식민 당국은 원주민 사회의 알테페들을 엔코미엔다와 카베세라로 재편하고 정복자들에게 엔코미엔다를 할당했다. 여기에 덧붙여 스페인인들은 이렇게 재편된 조직에 종교적인 성격까지 부여했다. 알테페들-엔코미엔다-카베세라 체제에다 교구를 추가한 것이다. 스페인인들은 엔코미엔다들의 건설과 더불어 독트리나라고 하는 원주민 교구들을 설정해나갔다. 엔코미엔다인 각각의 알테페들은 독립적인 교구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각각의 카베세라는 교구의 중심지라는 의미의 카베세라 데 독트리나(cabecera de doctrina)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사제들은 교구 중심지 카베세라에 거주하면서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비시타스 데 독트리나(visitas de doctrina)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종교적인 업무를 감독했다(Horn 1997, 25).

이렇게 설정된 교구들은 엔코미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엔코미엔다들이 한 개 이상의 교구들로 분할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한 교구가 두 개의 엔코미엔다를 포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교구는 하나의 엔코미엔다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교구는 재정이나 다른 지원들을 엔코미엔다에 의존하고, 엔코미엔다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원주민 공동체와 당국들을 토대로 기능했다(Lockhart 1992, 28).

이러한 교구 설정 작업은 식민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엔코미엔다와 카베세라 제도 자체가 기독교적인 제도였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기독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였다. 정복과 식민화는 기독교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코르테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스텍카 제국을 정복한 후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원주민의 기독교도화를 위해 활발한 선교활동을 벌였다. 1524년에 처음으로 12명의 프란시스코파 신부가 멕시코에 도착한 이

후 1526년에는 도미니쿠스파, 1533년에는 아우구스티누스파가 도착했다. 이 중에서 선교활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은 프란시스코파였다. 종파 별로 지역이 다르기도 했지만, 어떤 지역은 프란시스코파가 먼저 선교활동을 벌이다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파나 도미니쿠스파가 들어가서 선교활동을 벌이기도 했다.⁷⁾ 그리고 원주민 집단이 어느 종파를 지지하는가에 따라 종파 간 갈등도 빚어졌는데, 1530-1540년 동안 프란시스코파와 도미니쿠스파는 원주민에 대한 선교활동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는 가운데, 1540년대부터 엔코미엔다 체제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스페인 왕은 엔코멘테로들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제한했다. 엔코멘테로들의 힘이 강력해지고 원주민에 대한 엔코멘테로들의 착취와 억압이 심해지자, 라스 카사스 신부 같은 사람들이 엔코미엔다 제도의 문제점들을 비판했으며, 왕도 엔코멘테로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견제했다. 1542-1543년에 식민지 관리들이 엔코미엔다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자, 많은 엔코미엔다들이 몰수되었다. 더군다나 1545년 전염병으로 원주민 인구가 1/3 이상 감소하면서 엔코미엔다의 소득도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었다. 결국 1549년에 왕이 엔코멘테로들에게 할당된 원주민들에게서 공물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노동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엔코멘테로들과 원주민들의 종속적인 관계는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1550-1560년대에 들어서서 엔코멘테로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렇게 되자, 1560년대에는 엔코멘테로들의 음모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음모의 주도자였던 코르테스의 아들이 투옥되고, 멕시코 계곡 지역의 다른 엔코멘테로들은 체포되었다. 두 형제인 알론소 데 아빌라(Alonso de Ávila)와 힐 곤살레스 데 베나비데스(Gil González de Benavides)가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멕시코 계곡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엔코미엔다인 쿠아우티틀란(Cuahtitlan)이 즉각 왕에게 귀속되었다(Gibson 1964, 63). 멕시코 계곡 지

7) 16세기 가톨릭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James Lockhart and Stuart Schwartz(1983), Robert Richard(1966), Sarah Cline(1993) 참조.

역에 있었던 36개 엔코미엔다 중에서 11개가 1570년대 이전에 왕에게 돌아갔으며, 1570년대에 이르면 왕이 엔코멘테로들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면서 엔코미엔다가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렸다.⁸⁾

이러한 엔코미엔다 체제의 쇠퇴는 왕의 권한의 강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졌다. 엔코멘테로들의 모의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스페인 왕은 엔코미엔다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왕의 권한 하에 있는 정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이미 1530년대부터 스페인 식민 당국들은 원주민 공동체들을 본격적으로 스페인 식 행정조직으로 정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III. 중앙집권적 통치조직의 형성

1. 카빌도(cabildo)의 조직

1530년대부터 스페인 왕은 중앙집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스페인 방식의 지방자치체들(municipios)을 모델로 하여 원주민 마을들을 무니시피오들로 재편하고 시정부들을 구성했다. 이로써 아스테카 제국은 정치적 식민화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멕시코 중부에서 스페인 식의 시 정부들을 수립하려는 이러한 운동은 16세기 중반에 걸쳐 상당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카빌도 혹은 시위원회(council)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카빌도를 설치하여 그것을 토대로 식민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은 스페인 국가가 식민지 시대에 멕시코뿐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이룩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였다.

우선, 카빌도는 공동체의 정치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매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시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논의했다. 카빌도 관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공물을 징수하고 그것을 스페인 왕에게 바치

8)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720년이다.

는 일이었다. 공물은 정복 이전에 바치던 것과 같은 물품들, 예를 들면, 천막, 모포, 면화, 닭, 물고기, 달걀 등이었다(Haskett 1987, 211). 게다가 카빌도는 입법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노동 시장, 공공건물, 물 공급, 도로 건설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제정하는 일까지 담당했다. 그리고 카빌도는 작은 범죄나 음주에 관한 재판을 하는 법정의 역할도 수행했으며, 이와 관련된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감옥도 가지고 있었다(Gibson 1952, 116). 이렇듯 카빌도는 정치,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지배기구였다.

이러한 카빌도를 운영하기 위한 주요 직책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알칼데(alcalde)이고 다른 하나는 레히도르(regidor)이다. 주로 귀족 출신들로 이루어진 이 직책의담당자들은 보통 6명에서 12명까지로 모두 선출된 의원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맡은 임무가 달랐다. 알칼데의 경우에는 지방법정에서 민사 형사 소송에서 재판관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히도르들보다 더 많은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었다. 알칼데들은 보통 “돈(don)”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레히도르들은 그런 경우가 알칼데보다 많지 않았다. 그래서 레히도르들은 경험을 쌓거나 인맥을 통해서 알칼데로 승진하려고 했다. 이처럼 두 직책 사이에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 더군다나 레히도르들은 16세기말 경에 이르면 중요성이 점점 약해져서 많은 곳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6세기 말경에 톨락스칼라(Tlaxcala)는 네 명의 알칼데를 증원했지만, 네 명의 레히도르는 없애버렸으며, 1560년 테노치티틀란의 관리들 명부를 보면, 두 명의 알칼데와 12명의 레히도르가 있었는데, 1600년에는 알칼데의 수는 두 배가 된 반면, 레히도르들의 이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Lockhart 1992, 39-40). 이들의 임기는 보통 1년으로 순번제로 이루어졌는데, 종종 그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알칼데들이나 레히도르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도시 생활의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족 가문 출신들로서 그 가문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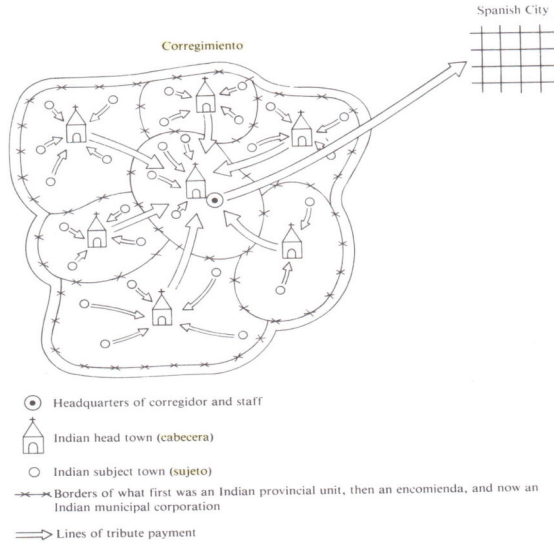
그렇다면 카빌도는 식민지 아스테카 제국에 새로운 것이었는가? 정복 이전에는 이러한 형태의 제도가 없었는가? 아스테카 제국에도 “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다. 예를 들어, 테노치티틀란과 텍스코코의 경우 법적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들로 구성된 최고 위원회가 있었다. 스페인인들에게 정복되기 직전인 1520년에 쿠이트라우악(Cuitlahuac)를 보조할 사람들을 네 명 선출한 것이 정복 이전에 테노치티틀란에서 보여준 위원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정복 이후 1523년 말 혹은 1524년 초 테노치티틀란의 식민 정부 초기에 코르테스는 공식적으로 “위원회” 직책들 중 하나였던 시우아코아틀(cihuacoatl)을 재조직했다. 하지만 아직은 스페인의 카빌도 체제 같은 그러한 위원회 형태는 아니었다. 그러한 위원회들이 법적인 기구였는지 최고 통치자 개인이 임시로 만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협의기구였던 아스테카 “위원회”가 테노치티틀란의 통치자 틀라토아니 개인 지배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Gibson 1964, 172). 식민 시대의 카빌도와는 다른 기구였던 것이다.

테노치티틀란에 알칼데와 레히도르들을 완전히 갖춘 카빌도 체제가 만들어 지려면 25년 정도 더 지나야 했다. 카빌도는 멕시코 중부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완전한 모습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높은 직책부터 자리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낮은 직책까지 채워졌다. 1550년에 조차도 완전한 형태의 카빌도가 모든 카베세라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테노치티틀란의 경우에도 1555년 초에야 카빌도가 형성되어 한 명의 알칼데가 2년 임기로 정복 이전의 관할구인 네 곳의 관할구역인 산타 마리아 쿠에포판(Santa María Cuepopan), 산 세바스티안 아차쿠알코(San Sebastian Atzacualco), 산 파블로 테오판(San Pablo Teopan), 산 후안 모요틀란(San Juan Moyotlan)을 대표했다. 그리고 카빌도의 관직들은 정복 이전의 정치 생활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다. 특히 레히도르 같은 관직은 정복 이전에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이처럼, 카빌도는 스페인인들이 일부러 식민지에 도입한 완전히 새로운 제도였으며, 정복 이전의 정부에서는 선례가 없는 것이었다.

2. 코레히미엔토(corregimiento)의 형성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확립 차원에서 스페인 왕이 수행한 또 하나



〈그림 2〉 코레히미엔토

출처: Lockhart and Schwartz(1983, 170)

의 작업은 코레히미엔토의 구성이었다. 스페인 왕은 원주민 정부를 식민화하기 위해서 지방을 일련의 몇 개의 커다란 구역, 즉 코레히미엔토로 나누었다. 코레히미엔토는 공물을 징수하는 지배체제로서, 그때까지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엔코미엔다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이미 엔코미엔다에 속하지 않는 모든 공동체는 왕의 엔코미엔다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16세기 중엽 이후 엔코미엔다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왕도 엔코멘테로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펴나가면서, 엔코미엔다는 점점 약화되어갔다. 왕은 아메리카 식민지 통치를 위해 주요지역을 부왕령으로 나누고 각 부왕령의 부왕 밑에 최고 통치기관인 아우디엔시아(Audiencia)를 설치했으며, 아우디엔시아의 관할 지역을 코레히미엔토로 나누었다. 이러한 계서제적인 통치 제도는 1520년대 말-1530년대에 확립되었다.

하지만, 코레히미엔토가 처음부터 멕시코 계곡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1530년대 초에는 멕시코 시티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

다가 1550년대에 이르러서야 코레히미엔토가 엔코미엔다 지역에 대한 완전한 정치적 통제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1550년 경 멕시코 계곡에는 코레히미엔토가 9개였다가 1570년대에는 15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코레히미엔토의 권위가 엔코미엔다에 있는 원주민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엔코미엔다의 힘이 최고 절정에 이른지 이십 년 만에 코레히미엔토가 왕의 권위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이다. 16세기 중엽 이후, 엔코미엔다는 점점 힘을 상실해갔지만, 코레히미엔토는 멕시코 계곡 전 지역에서 지방 정부를 수용하게 되었다. 1570년대에 코레히미엔토의 경계가 확립되었는데, 이 경계는 17세기, 18세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처럼, 코레히미엔토는 외부에서 왕의 대리인인 고급관리를 보냄으로써 식민지 지방의 통치체제를 좀 더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지적해야 할 것은 스페인인들이 엔코미엔다와 마찬가지로 코레히미엔토도 정복 이전의 알테페틀을 토대로 했다는 점이다. 코레히미엔토는 알테페틀과 반드시 일대일 대응 관계를 이루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알테페틀 전체가 하나의 코레히미엔토가 되었는데, 소치밀코, 코요아칸, 틀락스칼라, 툴란싱고 등이 그 예이다. 많은 경우에 알테페틀이었던 무니시피오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코레히미엔토를 형성했다. 찰코 코레히미엔토는 네 개의 무니시피오가 모여서 이루어졌다(Lockhart 1992, 46-47).

이렇게 형성된 코레히미엔토에 왕은 스페인인 최고 책임자인 코레히도르(corregidor)를 임명했다. 코레히도르는 식민지 원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쳤던 스페인 정부의 최하위 지방관리였다.⁹⁾ 원래 코레히도르의 임명은 부왕이 하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스페인 왕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코레히도르의 임기는 보통 1년이었지만 종종 기간이 연장되곤 했다. 그는 기록 담당관(escrivano), 통역 담당관(intérprete), 경찰 업무 담당관

9) 이 스페인 관리들은 식민지 시대 내내 시기에 따라 jueces, justicias, alcaldes mayores, corregidores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하지만 16세기에 멕시코 계곡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말은 corregidor였다.

(alguacil) 등을 거느린 채 코레히미엔토의 카베세라들 중 하나에 거주하면서 지방행정을 관리했다(Lockhart and Schwartz 1983, 171).

1530년대 초에 곧바로 몇몇 코레히도르들이 임명되었지만, 처음에 임명받은 코레히도르들은 멕시코 시에만 제한되었고, 허락을 받아야만 관할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엔코멘데로들과 코레히도르드의 마찰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초기의 코레히도르들은 봉급을 받았지만 스스로를 왕의 엔코미엔다를 관리하는 사람, 즉 일시적인 엔코멘데로로 생각했으며, 실제로 엔코멘데로가 코레히도르인 경우도 종종 있었다. 테페틀라오스톡의 엔코멘데로였던 후안 벨라스케스 데 살라사르가 텍스코코와 쿠아우티틀란의 코레히도르였듯이, 16세기 코레히도르 임명자 명단에 보면 엔코멘데로들의 이름이 있었다(Gibson 1964, 83). 하지만 코레히미엔토의 권한이 엔코미엔다에 있는 원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1550년대에 이르러서는 코레히도르들의 권한도 확대되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코레히도르가 원주민들에게 끼친 영향이다. 코레히도르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판과 세금징수의 임무였다. 그는 왕이 외부에서 임명한 스페인인 관리로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그리하여 코레히도르는 카빌도를 관리 감독하는 일뿐 아니라, 원주민과 스페인인 관련 민사, 형사 소송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했다. 문제는 코레히도르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원주민에 대한 착취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특히 초기의 코레히도르는 월급의 일부를 원주민에게서 직접 받았다. 예를 들어, 1540년대에 찰코의 경우, 코레히도르와 그의 부하직원들은 관할지역의 원주민에게서 닭, 옥수수, 고추 같은 식품과 목재, 심지어 8명의 원주민 하인들까지 월급의 일부로 받았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코레히도르들이 원주민을 보호하라는 공식적인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원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코레히도르들은 엔코멘데로들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원주민을 다루었다. 1560년대 찰코의 경우를 보면 당시 코레히도

르들의 원주민에 대한 착취가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코레히도르 호르헤 세론 이 카르바할(Jorge Cerón y Carbajal)은 자신의 집을 짓고 말들을 돌보는 데 원주민의 노동력을 아무런 보수 없이 이용했으며, 물을 길어 나르고 음식을 준비하는 데도 아무런 대가 없이 원주민 하인을 썼으며, 그 외에도 매트리스, 침대, 빨감, 기타 물품들 모두를 공짜로 요구했다. 따라서 코레히도르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코레히도르들은 공식적인 공물 징수 외에 이처럼 비공식적인 공물을 징수하거나 원주민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원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가중시켰다. 그들은 식민지에서 왕의 최말단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원주민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착취했던 사람들이었다. 원주민운동의 가장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그들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아스테카의 정치 행정조직이 식민통치에 맞게 재편되는 과정은 변화와 연속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재편 과정은 정복 이전의 원주민 지배계층의 지위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원주민 지배계층의 지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IV. 원주민 지배계층의 지위 변화

1. 원주민 지배계층의 죽음

정복 이전 아스테카 제국은 귀족과 평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귀족으로 이루어진 상층계급은 틀라토아니와 피필틴(pipiltin)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목테수마 같은 왕들과 왕의 신하들, 각 알테페틀의 지배자들, 독립 왕국의 왕들, 군 장교들, 세금 징수자들, 성직자들, 재판관들 등이었으며, 그 지위가 세습되었다. 이들 귀족은 토지를 소유하고 공동체들에게서 공물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복은 이러한 원주민 지배계층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원주민 지배계층은 스페인인들의 종속민으로 강등되었다. 외부에서 온 새로운

지배계층에게 아스테카 제국의 지배계층이 종속된 신분이 된 것이다. 원주민 지배계층은 정치적 행정적 재편 과정에서 중앙 정부에 대한 통제권과 권위와 군사적 종교적인 힘을 상당 부분 상실했으며, 그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해도 지방적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코르테스 가문이 테파네카(Tepaneca)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자, 그곳에 대한 원주민 지배자의 통제권이 약화되었다. 삼각동맹으로 이루어진 아스테카 제국은 분열되고 그 힘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게 되었다. 스페인인들은 틀라토아니와 피필틴이 갖고 있는 지위와 특권을 많이 빼앗았다.

이러한 변화에 원주민 지배계층의 일부는 저항했다. 스페인인들은 원주민 지배계층의 저항을 처벌과 강제로 대응했다. 스페인인들은 그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그들의 권한도 축소시켰다. 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죽음이였다. 원주민 지배계층은 저항에 대한 대가로 죽어갔다. 이러한 죽음은 바로 원주민의 통제권의 상실을 의미했다. 테노치티틀란에서는 1520년 원주민 봉기 과정에서 목테수마 2세가 죽었으며, 1525년에는 테노치티틀란, 텍스코코, 타쿠바의 저항하는 틀라토아니들, 즉 쿠아우테목(Cuahutemoc), 코아나코치친(Coanacochtzin), 테노판케차친(Tenopanquetzatzin)이 스페인인들에게 살해당했다.

원주민 지배계층의 죽음을 불러 온 것은 이러한 저항으로 인한 것뿐이 아니었다. 원주민들은 스페인인들과 함께한 정복 활동에서 죽기도 했다. 쿠아우테목의 뒤를 이은 돈 후안 벨라스케스 틀라코친(Don Juan Velázquez Tlacotzin)은 과테말라 원정길에 스페인인들과 함께 동행 했다가 사망했다. 원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전염병이었는데, 원주민 지배계층도 예외는 아니었다. 1520년에 목테수마의 후임이었던 쿠이틀라우악도 천연두에 걸려 사망했다.

이렇듯 스페인인들의 정복에 일부 원주민 지배계층은 저항했으며 비참한 죽음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지배계층의 상당수는 스페인인들의 식민화 작업에 협력하며 생존의 기회를 모색했다. 스페인인들이 협력하는 원

주민 귀족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원주민 지배계층의 정치적 식민화: 틀라토아니(Tlatoani)에서 고베르나도르(Gobernador)로

아메리카를 정복한 스페인인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 지배계층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했다. 그들은 아스테카 제국을 식민화하는 데 원주민 지배계층을 적절히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원주민 지배계층은 원주민과 스페인 식민당국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아메리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스페인인들보다는 그곳에 친숙한 원주민 지배계층이 식민 지배체제를 수립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스페인인들은 원주민을 스페인 식으로 분류하고 명명했다. 원주민 상층계급 중에서 틀라토아니 혹은 틀라토케(Tlatoque)를 카시케¹⁰⁾라 하고, 피필틴을 일괄적으로 프린시팔레스(principales)라고 했다. 그리고 원주민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었던 집단은 마세구알레스(maceguales)라고 불렀다. 카시케들은 프린시팔레스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며, 이 두 계층은 마세구알레스보다는 우위에 있었다.

우선, 스페인인들은 자신들에게 협력하는 원주민 지배계층에게는 지위를 보장해주고 토지와 가신들의 소유를 인정해주었다. 그들은 틀라토아니 혹은 카시케들을 “자연적인 우두머리들(señores naturales)”이라고 부르며 존중해주었다. 또한 스페인인들은 원주민 지배계층에게 칼이나 총을 찰 수 있고 스페인 식 복장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으며, 말이나 노새를 탈 수 있는 권리,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주민 지배계층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었다(Gibson 1964, 155).

정복 후 아메리카를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인들이 원주민의 협력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고 또 그러한 협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분야는

10) cacique는 아라와 말로 스페인인들이 서인도제도에서 도입한 용어이다.

바로 정치, 행정 영역이다. 아스테카 제국의 기본적인 정치 단위인 알테페틀을 엔코미엔다, 카베세라, 코레히미엔토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인들은 원주민 지배계층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그들을 관리로 임명했다. 먼저 1535년 누에바 에스파냐의 부왕인 멘도사(Mendoza)는 원주민 무니시피오들에 고베르나도르 직을 만들었다. 스페인인들은 아스테카 제국의 틀라토아니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 스페인인들은 아스테카 제국의 틀라토아니 정부를 식민지의 고베르나도르 지배체제(gobernadoriyotl)로 바꾸면서 종래의 틀라토아니를 그대로 고베르나도르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래서 고베르나도르를 “카시케와 고베르나도르(cacique y gobernador)”라고 부르기도 했다.

틀라토아니에서 고베르나도르로 원주민 지배계층이 존속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우는 아스테카 제국의 최상층이었던 목테수마 왕족의 경우이다. 1520년 목테수마가 죽은 다음에 그의 동생 쿠이틀라우악이 테노치티틀란의 틀라토아니로 선출되었다. 몇 달 안 가 전염병으로 그가 죽자 목테수마의 조카 쿠아우테목이 뒤를 이었는데 그도 1525년 과테말라 원정에서 코르테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후에 여러 명의 틀라토아니가 선출되었다가 죽고 나서, 디에고 우아니친(Diego Huanitzin)이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고베르나도르로 선출되었다. 그 뒤를 이어 목테수마의 삼촌인 디에고 테우에츠키(Diego Tehuetzqui)가 1540년대에서 1550년대 초까지 두 번째 고베르나도르로 임무를 수행했다. 왕족 출신으로 마지막 고베르나도르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루이스 데 산타 마리아 시팍(Luis de Santa María Cipac)이었다. 1565년에 그가 죽음으로써 왕족 출신의 고베르나도르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왕족 이외에도 다양한 귀족 가문의 틀라토아니들이 고베르나도르로 선출되었다. 예를 들어 텍스코코의 피멘텔(Pimentel) 가문, 익스타팔라파(Ixtapalapa)의 알롱소 아하야카(Axayaca) 가문, 그 외 여러 도시의 원주민 왕족들이 카시케이면서 고베르나도르에 선출되었다. 게다가 틀라토아니가 아닌 사람이 고베르나도르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두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 이처럼 정복 이전의 원주민 지배계층,

특히 틀라토아니가 정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 행정체제의 지배층으로 유지되었다.

식민화 과정에서 원주민 지배계층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수행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시의회 카빌도의 의원직이었다. 스페인인들은 카빌도의 알칼데와 레히도르 직에 원주민 귀족들을 선출했다. 이외에도 기록관인 에스크리바노들(escribanos), 공동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마요르도모들(mayordomos),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토피레스(topiles) 혹은 알구아실레스(alguaciles), 공물 징수를 담당하는 테키틀라토케(Tequitlatoque) 등 원주민 지방 정부의 관리들을 원주민 귀족 출신들로 채웠다(Aguirre Beltrán 1953, 31-32). 식민지의 지배체제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행정의 담당자들을 아스테카 제국의 원주민 지배계층으로 충원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1530년대 말까지도 원주민 출신 알칼데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1550년 이후에야 원주민 알칼데와 레히도르들이 있는 카빌도 체제가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530년에 푸에블라에서는 원주민이 섞인 카빌도 체제를 시도했지만, 멕시코 시에서는 원주민들이 카빌도의 의원이 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들의 자격 요건도 처음에는 순수한 원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자 기준이 완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아스테카 제국의 귀족 계급은 카빌도들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 관직을 보유하지 못한 채 있어야 했다. 분명히 원주민 귀족계급의 관직보유에 단절이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원주민 지배계층의 지위가 정복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스페인인들이 지배층이 되면서 아스테카의 원주민 지배계층은 귀족의 최하층으로 흡수되었다. 목테수마 왕족의 경우에는 토지를 받고 카시케 역할을 했지만 그 권한이 지방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틀라토아니들은 고베르나도르가 되면서 사적인 공물 징수를 할 수 없게 되고, 공동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도 제거되었다. 그 자리를 스페인인 관리 코레히도

르가 차지하게 되었다. 원주민 지배계층은 봉급을 받는 관리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주민 지배계층의 소득도 감소했다. 고베르나도르들은 봉급 외에 기껏해야 몇 명의 하인들 정도의 제한된 서비스만을 공동체에게서 받을 수 있었다. 보상이 너무 제한적이고 의무와 책임은 컸기 때문에 원주민 지배계층은 관직의 보유를 그리 달가와하지 않게 되었다. 17세기에 가면 고베르나도르나 알칼데가 되고 싶어 하는 원주민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정복 초기 원주민 지배계층의 대응이다. 정복 과정부터 코르테스에게 협력한 원주민 지배계층은 정복 후 코르테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얻어내려고 했으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스페인 왕에게 직접 호소하기까지 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아스테카 제국 시절 원주민 귀족들이 목테수마 왕에게 청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Díaz del Castillo 1976, 183-184). 정복 초기부터 상층계급 원주민들은 스페인 왕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1527-1528년에 코르테스가 스페인으로 돌아갈 때 40명의 원주민 지배계층이 동행해서 왕을 알현했다. 당시에 원주민 지배계층이 왕에게 호소하고자 했던 것은 주로 자신이나 공동체에게 특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는 원주민 방문자들에게 특권을 보장해주면서 연금을 지급하고 스페인 식 옷을 주고 정복 이전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Gibson 1960, 176-177).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의 이러한 약속은 식민지에서 종종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렇게 되면서 급기야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원주민 지배계층의 왕 알현 빈도수도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다. 어쨌든 정복 초기 원주민 지배계층이 스페인인들에 대한 협력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받으려고 스페인 왕을 알현했던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들은 비록 그 요구가 제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스페인인들이 협력적인 원주민 지배계층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려 했음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원주민 지배계층이 약화된 권위와 특권과 실추된 지위를 만회하려는 절박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지배계층의 대다수는 정복 이후 식민화 과정에서 계속 그들의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기 위해서 원주민 지배계층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문화적으로 철저하게 식민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전략이었다. 카시케와 프린시팔레스들은 자신들의 문화까지도 철저하게 식민화 하려고 했다. 평민인 마세구알레스와는 달리,¹¹⁾ 그들은 집도 스페인 식으로 짓고 집안 가구나 살림살이들도 스페인 식의 것을 구입했다(Gibson 1964, 156). 이들 중에 소수는 후아레스(Juárez), 가르시아(García) 같은 스페인 성을 사용하며 상층 계급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복 후 아스테카 제국의 정치적 식민화 과정은 연속의 과정이자 동시에 변화의 과정이었다. 우선 연속의 측면에서 보자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아스테카 제국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조직인 알테페틀이 식민지의 정치지배 질서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스페인인들은 정복 이전 원주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전통들 중에서 식민화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유지했다. 다음의 <표 2>의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페인인들은 알테페틀을 토대로 엔코미엔다, 무니시피오, 코레히미엔토 같은 정치 행정 조직들을 만들어나갔다. 따라서 식민지의 정치적 질서는 아스테카 제국의 알테페틀을 근간으로 거기에 명칭과 형식만 조금 바꾼 채 스페인

〈표 2〉 16세기 정치 행정 조직의 변화

알테페틀	→엔코미엔다	→코레히미엔토(무니시피오)
칼푸이	→	카베세라-수헤토

11) 마세구알레스 중에는 부와 권력을 얻어서 프린시팔레스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프린시팔레스가 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 정치 행정 질서를 만든 것이었다.

연속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원주민 지배계층의 존속이다. 스페인인들은 정복과 정복 이후 식민화 과정에 저항하는 원주민들은 가차 없이 죽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협력하는 원주민들은 정복 이전의 지위와 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게다가 식민지의 정치,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을 원주민으로 충원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스페인인이 턱없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식민지 현실에 낯선 스페인인들보다는 그곳에 익숙한 원주민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원주민 지배계층의 상당수가 식민지 지배질서의 관리들로 계속 살아남았다. 특히 무니시피오의 우두머리였던 고베르나도르는 아스테카 제국의 틀라토아니였다. 역할과 권한은 좀 달랐지만 원주민 지배계층은 여전히 식민지 정치 질서의 요직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 외에 지방의 행정관리들이었던 알칼데, 레히도르, 에스κρι바도르, 마요르도모 등의 역할도 원주민 지배계층이 담당했다.

하지만 식민화 과정은 연속의 과정만은 아니었다. 알테페틀의 틀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토대로 엔코미엔다, 카베세라, 코레히미엔토 등으로 재편하는 과정은 변화의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스페인인들은 아메리카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방의 무니시피오에 설립된 카빌도이다. 이 카빌도는 아스테카 제국에는 없던 새로운 종류의 정치제도였다. 틀라토아니 개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자문기구 역할을 했던 아스테카 제국의 최고 위원회와는 달리, 카빌도는 식민지 시대에 일종의 협의기구로서 지방의 정치, 행정을 담당하며 시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코레히미엔토의 우두머리였던 코레히도르도 식민지 아메리카에 새롭게 도입된 관직이었다. 코레히도르는 스페인 왕이 부왕을 통해서 임명 받은 식민 정부의 최하위 지방 관리로서 지방 행정을 담당했다. 그들은 원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면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강조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와 연속의 과정이 식민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이 변화와 연속이 갖는 진정한 의미이다. 본고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치적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스페인인들의 정책들과 활동들은 아스테카 제국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스페인인들은 정복 후 식민지의 정치조직을 아스테카 제국의 정치조직 알테페틀을 바탕으로 재편했는데, 그것은 스페인인들이 식민화 과정에서 아스테카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효율적인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었다. 더구나 스페인인들은 거기에 동원된 원주민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상당 부분 빼앗으면서 스페인인들의 종속민으로 전락시키고 식민지배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원주민 지배계층의 영향력도 카베세라라는 극히 지방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스페인인들과 원주민 지배계층 간에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복 이후 아스테카 제국의 연속과 변화의 과정을 논할 때, 그러한 과정들이 식민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최영수(1995), 『라틴아메리카 식민사』, 대한교과서.
- 에르난 코르테스(2009), 『코르테스의 멕시코제국 정복기 1, 2』, 안헬 고메스 역, 김원중 역, 나남.
- 엔리케 두셀(2011), 『1492년 타자의 은폐: ‘근대성 신화’의 기원을 찾아서』, 박병규 옮김, 그린비.
- 이매뉴얼 윌러스틴(1999), 『근대세계체제1』, 나종일 외 옮김, 까치.
- Altman, Ida, and James Lockhart(eds.)(1976), *Provinces of Early Mexico: Variants of Spanish American Regional Evolution*. Los Angeles: UCLA Latin American Center.
- Altman, Ida, Sarah Cline and Juan Javier Pescador(2003), *The Early History of Greater Mexico*.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Borah, Woodrow(1951), “New Spain’s Century of Depression.” *Ibero-*

- Americana*, vol. 3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1983), *Justice by Insurance: The General Indian Court of Colonial Mexico and the Legal Aides of the Half-Real*.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1991), "Yet Another Look at the Techialoyan Codices," *Land and Politics in the Valley of Mexico: A Two-thousand-Year Perspective*, H.R. Harvey(ed.),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pp. 209-221.
- Chance, John K.(1989), *Conquest of the Sierra: Spaniards and Indians in Colonial Oaxaca*,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Chevalier, François(1963), *Land and Society in Colonial Mexico: The Great Hacienda*, Alvin Eustis(tran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line, S. L.(1984), *Colonial Culhuacan, 1580-1600*.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_____(1986), *Colonial Culhuacan, 1580-1600: A Social History of an Aztec Town*, Alub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_____(1993), "The Spiritual Conquest Reexamined: Baptism and Christian Marriage in Early Sixteenth-Century Mexico,"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3, No. 3, pp. 453-480.
- Collier, George A., Renato I. Rosaldo, and John D. Wirth(eds.)(1982), *The Inca and Aztec States, 1400-1800: Anthropology and History*, New York: Academic Press.
- Collier, Jane F.(1973), *Law and Social Change in Zinacant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osío Villegas, Daniel(1976), *Historia General de México*(tomo 1. 2.),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 Díaz del Castillo, Bernal(1976),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 México: Editorial Porrúa.
- Foster, George M.(1960), *Culture and Conquest: America's Spanish Heritage*, Chicago: Quadrangle Books.
- Gibson, Charles(1952), *Tlaxcala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Haven: Yale Historical Publications, Miscelany, LVI.
- _____(1960), "The Aztec Aristocracy in Colonial Mexico,"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2), pp. 169-196.
- _____(1964), *The Aztecs Under Spanish Rule: A History of the Indians of the Valley of Mexico, 1519-1810*,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sner, Kevin(1984), "Las elites indígenas en los altos de Chiapas(1524-1714)," *Historia Mexicana*, 33, pp. 405-423.
- Gruzinski, Serge(1989), *Man-Gods in the Mexican Highlands: Indian Power and Colonial Society, 1520-1800*,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1992), *Painting the Conquest: The Mexican Indians and the European Renaissance*, Deke Dusinberre(trans.), Paris: UNESCO and Flammarion.
- Harvey, H. R.(ed.)(1991), *Land and Politics in the Valley of Mexico*.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 Harvey, H. R., and Hanns J. Prem(eds.)(1984), *Explorations in Ethnohistory: Indians of Central Mexico in the Sixteenth Century*.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Haskett, Robert S.(1991), *Indigenous Rulers: An Ethnohistory of Town Government in Colonial Cuernavaca*,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Horn, Rebecca(1997), *Postconquest Coyoacan: Nahua-Spanish Relations in*

Central Mexico, 1519-1650, Stanford University Press.

Kellogg, Susan(1984), "Kinship and Social Organization in Early Colonial Tenochtitlan," *Supplement to the Handbook of Middle American Indians*, Victoria Reifler Bricker(ed.),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_____(1986), "Aztec Inheritance in Sixteenth-Century Meixco City: Colonial Patterns, Prehispanic Influence," *Ethnohistory*, 33(3), pp. 313-330.

_____(1993), "The Social Organization of Households Among the Mexica Before and After Conquest," *Prehispanic Domestic Units in Western Mesoamerica: Studies of the Household, Compound, and Residence*, Robert S. Santley and Kenneth G. Hirth(ed.), Boca Raton: CRC Press, pp. 207-224.

_____(1995), *Law and the Transformation of Aztec Culture, 1500-1700*,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Kubler, George(1948), *Mexican Architecture of the Sixteen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eddy Phelan, John(1970), *The Millennial Kingdom of the Franciscans in the New World: A Study of the Writings of Gerónimo de Mendieta (1525-1604)*,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eón-Portilla, Miguel(1984), *Bernal Díaz del Castillo,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tomo A. B.), México: Historia 16.

Lockhart, James(1991), *Nahuas and Spaniards: Postconquest Central Mexican History and Philology*(N&S), Stanford, Calif. and Los Angeles: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1992), *The Nahuas after the Conquest: A Social and Cultural History of the Indians of Centural Mexico, Sixteenth through Eighteenth Centur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and Stuart B. Schwartz(1983), *Early Latin America: A History of*

Colonial Spanish America and Brazi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tolinia (Benavente), fray Torbio de(1971), *Memorias o libro de las cosas de la Nueva España y de los naturales de ella*, Edmundo O’Gorman(ed.), Méxic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Históricas,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Owensby, Brian P.(2008), *Empire of Law and Indian Justice in Colonial Mexico*,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Richard, Robert(1966), *The Spiritual Conquest of Mexico: An Essay on the Apostolate and the Evangelizing Methods of the Mendicant Orders in New Spain, 1523-1572*, Lesley Byrd Simpson(tran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Sahagun, Fray Bernardino de.(1989), *Conquest of New Spain, 1585 Revision*, Howard F. Cline(trans.), S. L. Cline(ed.),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Schroeder, Susan(1991), *Chimalpahin and the Kingdoms of Chalco*, Tusc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ezozomoc, Hernando Alvarado(1943), *Cronica Mexicana*, México: Ediciones de la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México.

Wood, Stephanie(2003), *Transcending Conquest: Nahuas Views of Spanish Colonial Mexico*,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김윤경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yella@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7일

The political colonization of Aztec Empire during the 16th century: Change or Continuity?

Yoonkyung Kim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oonkyung(2013), The political colonization of Aztec Empire during the 16th century: Change or Continuity?

032

033

Abstract This article tries to analyse the colonization of Aztec Empire during the 16th after the conquest, focused on the political aspects. Europeans established colonial systems to govern the indigenous people, using or changing Indigenous institutions. First of all, as for the continuous process, the Spanish made a political structure on the basis of Altepetl which had been an important political unit of Aztec Empire. And the part of Indigenous ruling class of Aztec Empire played a important part in the politics of colony area. They survived and became colonial officials. As far as the changing procedure, cabildo, a new political system was organized in the municipal government and corregidor was appointed by the king to control the local government of the colony. By the way, the important thing is that all of these processes formed the part of colonization. Altepetl was used of an basis of the politics of the colony and the indigenous ruling class were subordinated to the spanish. This is the real meaning of the transformation and the continuity which Aztec Empire had undergone after the conquest.

Key words Aztec Empire, colonization, altepetl, corregimiento, encomienda, cabildo